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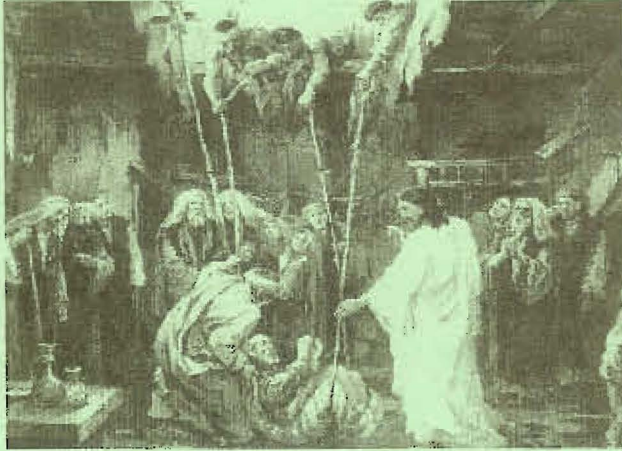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7주일
제32권 13호(나해) 2012-2-19

[묵상]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중풍 병자는 친구들의 믿음과 도움 덕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병자들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 권능에 대한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이 말씀은 하느님을 잘 안다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율법 학자들은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성 모독임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신적 권능을 보고도 일반적인 놀랍고 신기한 일로 치부해버린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의아해 할 뿐입니다. 자신의 지식만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려는 이들은 예수님 행위가 그저 처음 보는 신기한 일일 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느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자만이 죄를 고발 할 수도 있음을 망각한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신기한 현상에만 열광하는 저희도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樞-

martin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을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착수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형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오창섭
	(생)
주 일 낮 미사	(연) 신태동 요아킴, 송기인 요셉, 이상일 요셉, 박영준 안토니오, 윤준의 스콜라스티카, 유점이 베로니카, 이금순 마리아, 강세환 루카 & 김경숙 마리아, 이종화, 박창식 베드로 & 김은실 카타리나, 김정재 안젤라, 오진 베드로, 이인순, 낙태된 영혼들
	(생) 우영희 엘리사벳, 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글라라,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노근용 바오로, 노찬술 토마스 & 노미경 켈라, 박홍룡 요셉, 전안나 & 전복래 데레사 가정, 송호창 요셉 & 송호민, 김리처드 요한 & 김스테판 프란치스코, 김명 스텔라 가정, 채양석 콜레 & 채승희 에스터 가정, 전화숙 마리아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홍석인 체칠리아, 문밥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3,18-19.21-22.24ㄴ-25

화답송 ㉠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행복하여라,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이!
불행한 날에 주님이 그를 구하시리라. 주님이 보살피고
살리시니, 그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 내주지 않으시리라. ㉠
○주님이 그를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아플 때 온갖 고통 없애시리라.
저는 아뢰었나이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
○당신은 저를 온전토록 붙들어 주시고, 당신 앞에
영원히 세워 주시나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

제 2독서 코린토 2서(2 Corinthians) 1,18-22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잠깐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 음 마르코(Mark) 2, 1-12

영성체송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날날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94	234	208
봉헌	257	257	269
성체	286	301	280
파견	239	196	17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성경, 영감, 진리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
한 사람이 되게 해 준다.’ (2티모 3,16-17)

신학적 고찰에서는 분명 영감과 진리를 교회의 성경 해석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거룩
한 본문을 그 본성에 따라 해석하기 위한 요구들에 더 잘 응답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실재들에 대하여 적절히 더 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영역의 연구가 발전하고 성
서학과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위하여 결실을 맺기를 열렬히
희망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말씀의 원천이며 기원

20). 계시의 경륜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시작되고 기원합니
다. 그분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
가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33[32],6).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
시는” (2코린 4,6; 참조: 마태 16,17; 루카 9,29) 분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로고스”(요한 1,14 참조)이신 아드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 오셨고(요한 4,34 참조), 그 아드님
안에서 계시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버지로
드러내시며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교육을 완성하십니다. 그
교육은 이전에는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창조 안에서 이루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 백성과 모든 사람들
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계시는 아드님께서 위로자를, 곧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
끌어 주실”(요한 16,13) 아버지와 아드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써(요한 14,16 참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2코린 1,20 참조).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종국에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1코린
15,28) 아버지께로 향한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요한 14,6 참조).

21).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 주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침묵, 전능하신 분이
시며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멀리 계시다는 체험은, 강생하신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지상 여정에서 결정적인 단계입
니다.

그분께서는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그러한 침묵에서 오는 당신
의 고통을 탄원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르 15,34; 마태 27,46) <◆계속>

“용서는 아멘”

아기들은 아무거나 먹으려고 해서 위험합니다. 또 뜨거운 것도 만지려 하고, 차가 다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기를 보살핍니다. 그런데 설령 어머니가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느님 당신은 우리 인간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 복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사람이 그것을 좋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느님께 냉담해 집니다. 또한 인간은 자극적인 쾌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쾌락 역시 결국은 인간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것 대신 절제를 통한 평화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런 하느님께 싫증을 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잘 모르고, 하느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철부지 같은 인간 때문에 애간장이 타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큰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 때문에 배반까지 당하십니다.

하느님을 배반한 인간은 하느님을 떠났고, 이제는 인간 세상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고 남용하여, 인간 세상을 미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와 좌절이 드리운 눈물의 골짜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느님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통곡하며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다정한 음성이 되어, 따뜻한 손길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바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셨음을 선언하시고, 당신의 일을 차게 해 나가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시

며 그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셨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나서 병에 걸렸다고 외면당하는 병자에게 용서와 치유를 베풀시고,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했던 창녀에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직 돈만 벌었던 욕심쟁이 세판장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당신을 배반한 허풍쟁이 제자도 다시 받아주시고, 당신을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로마의 정의(正義)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용서해주셨습니다. 일흔일곱 번이라도, 아무리 그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부정하고, 이웃을 부정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아니오, 아니요!” 했지만, 예수님은 “그래, 그래!” 하시며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가, 그 무거운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생애가 하느님께 대한 ‘아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말도 맛있는

어떤 것은 생으로 먹어야 맛이 나고
어떤 것은 열려야 맛이 나고요.
어떤 것은 말려야 맛이 나고, 또 어떤 것은
얼고 녹는 것을 반복해야 맛이 난다고 하니
한 마리 물고기가 내는 다양한 맛도 놀랍고
그 맛을 찾아낸 사람들 입맛 또한 경이롭습니다.
맛을 아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맛일지 그 말의 맛이 궁금합니다.

글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권순길 체칠리아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 봉사가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2월22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시다.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합니다.)

- 미사 :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2월24일부터 오후 7시30 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 로 진행됩니다.

- 재의 수요일후 금요일(2월24일) : 토런스 동구역
- 사순 제1주일 금요일(3월2일) : 토런스 서구역
- 사순 제2주일 금요일(3월9일) :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3월16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23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30일) : P.V. 구역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재의 수요일부터 준비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
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시다. 애공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5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2011년도분 세금보고 세미나(사회복지분과 주최)

- 일시 : 오늘 주일(19일) 낮미사와 친교점심 후, 강당
- 강사 : CPA 채양석 막시밀리아노 폴베
- 세미나 내용 : 소득기준, 공제항목, 인적공제, 크레딧,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과세대상금액, Capital Gain or
Loss, 해외금융자산보고 등
- 문의 : 차인수 안드레아 사회복지분과장 ☎(310)256-6001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서 배부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서류접수 : 4월1일~5월15일
- 장학금 지급 : 매년 8~10명 선정, 첫지급 8월1일 이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본당 올드레아 2월 정기모임

- 일시 : 23일(목) 저녁미사 후
- 올해부터 본당 올드레아 월례모임이 매달 4째주 목요일
저녁미사후로 바뀌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백삼위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 모집

- 성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 대상 : 부활절을 앞두고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교우
- 문의 : 지휘자 민원희 안나 ☎(310)634-9631

◆ 백삼위 탁구 동호회 발족

- 회원모집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일(시간 추후 결정)
- 장소 : 강당, 유아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사순 특강

- 일시 : 3월14일(수), 15일(목) 저녁미사 후
- 장소 : 성전
- 강사 : 이연학 요나 신부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소속)

◆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성지순례 기념사진/비디오

- 내용 : 사진 CD 2장(1500여장 내재)+
비디오 DVD 1장(1시간20분 길이)
- 재료비 후원 : 3장세트 \$10
- 구입처 : 사무실
- 문의 : 홍보분과 안재만 다니엘 ☎(310)972-0239
이민상 사도요한 ☎(213)709-4400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19일(주일) : 하버/카슨 구역(설렁탕 \$3)
주일학교(수업/점심 없음)
- 2월26일(주일) : 토런스 서2반(해물카레 \$3)
주일학교 3학년(소시지야채볶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윤철	권태만	김광자	김기정	김민석
	김상규	김양금	김옥찬	김우용	김원호	김현숙
	남명자	민형기	박광자	박근식	박음전	변혜경
	송영미	송재훈	송준규	엄세종	윤분아	윤희동
	이명자	이인두	이일길	이태옥	이현주	이효새
	의 명	전동훈	정규숙	채미정	최의수	최이원
	최현찬	한혁수	한길선례	합계 : \$3,270		
미사헌금 : \$2,807						

성전헌금	강숙경	강윤철	권태만	김광자	김기정	김민석
	김양금	김우용	김원호	김현숙	남명자	박광자
	변혜경	엄세종	윤희동	이명자	이현주	이효새
	의 명	전동훈	정규숙	채미정	최의수	최이원
	최현찬	한혁수	한길선례	합계 : \$2,345		
	감사헌금 : 한길선례 박미정 박이레네 서경서예반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한국학교 오늘주일(19일) 수업 없습니다

- 20일(월) 프레지던트데이 연방공휴일 관계로 쉽니다.

주일학교 교사연수

지난17일(금)부터 오늘 주일(19일)까지 빅베어 레이크에서 주일학교 교사 20명이 연수중입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시작

- 기간 : 2월1일(수)~3월31일(토)까지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중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9일(금)~3월10일(토), 장소 : 백삼위 본당
- 준비물 : 성경, 묵주, 미사헌금,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 티셔츠, 세면도구
-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30일(금)~4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 집(37855 Highway 79 S. Temecula)
- 대상 : 9~12학년 * 참가비 : \$60(3월1일 이후 신청은 \$8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티셔츠, 세면도구, 미사헌금 * 문의 : 황 교무주임 ☎(424)903-6637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9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30명(Deposit \$2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접수중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면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정 올리아 교장 ☎(310)713-2669

남가주 소식

故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 감독 구수환 KBS PD 강연

- 일시 : 2월28일(화) 오후 7시30분
- 장소 : LA성바실 한인천주교회(3611 Wilshire Bl.)
- 주최 : 미주아프리카 희망후원회(이사장 김효근 신부)
- 문의 : 이안젤라 ☎(310)617-3110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노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노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강순복 요세피나 850-6388 2/4(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2/11(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대우 비오 378-8763 2/18(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619-7763 2/12(주일) 사하라 온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진영선 크리스티나 781-0856 2/14(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이명자 마가렛 320-0855 2/17(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대태사 634-6923 2/10(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2/1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2/18(토) 오후 6시30분 성당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런 마리아 985-2882	최현찬 안드레아 938-0848 2/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2/10(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이건영 프란치스코 377-5632 2/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2/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2/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방사, 축복, 축성

☞ ‘신부님! 이 목주를 ‘방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또는 ‘축성해 주세요.’... 어느 표현이 정확한 것인가요?

정답은 ‘축복해 주세요.’입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상이나 목주, 패와 메달 등을 축복할 때에 방사(放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은혜를 베풀다.’ 또는 ‘성물에 축복하는 말씀을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별된 물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祝福)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축복이란 베네딕시오(benedictio)라는 라틴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좋은(bene)과 말(dictio)의 합성어로 ‘좋은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좋은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축복의 대상에는 사람과 사물 모두가 포함됩니다. 즉 주님의 은총이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의 다양한 세속활동을 위한 건물들, 즉 새집, 사무실, 공장, 가게, 학교, 병원, 자동차 등과 전례에 사용되는 감실, 십자가, 공적으로 전시할 성화상 등에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교우들의 신심생활을 돕는 목주, 스카폴라, 성모상, 성인상 등에 행합니다.

“주님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창세 39,5)

반면에 축성(祝聖)은 콘세크라시오(consecratio)라는 라틴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con)와 거룩함(sacratio)이 결합되어 ‘거룩함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성은 하나님께 봉헌되어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나 사물들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사 거행에서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감사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 것을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그리고 처음 성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교구장 주교는 제대를 기름과 기도로써 축성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성직자에 오르는 서품이 바로 축성식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성은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축성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도록 구별시키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미사 중 “주님의 기도”에 ‘아멘’을 왜 읽을까?

☞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는 왜 “아멘”을 하지 않을까요?

아멘(Amen)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나 종교적 문구의 끝에서 동의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을 붙여 우리가 앞에 바친 그 기도문의 내용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특히 미사 중에 바치는 ‘아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기도와 예물기도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 끝에 교우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교우들이 사제가 바치는 기도예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도의 끝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마침 영광송을 사제가 바친 후에 신자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과 감사기도 전체에 온전히 마음으로 응답하며 동의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교우들은 “아멘”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는 성체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멘’은 기도를 마감하는 응답이며 주님의 뜻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끝에 바로 아멘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찬례 예식 중 영성체 예식의 시작으로 사제는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또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고 교우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교우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사제는 혼자 부속기도(附續祈禱: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를 바칩니다. 부속기도가 끝나면 모든 교우가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고 찬미의 기도로 끝맺음을 합니다. 즉 주님의 기도 그 자체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 사제의 기도와 이어지는 영광송이 “아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을 붙이지 않습니다.